작년 2세 최강마 '컴플리트밸류'…우승 1순위

라이벌 '승부사' 레이팅 가장 높아
'아스펜태양' 명기수 문세영과 호흡
'맨오브더이어' '위너스타'도 주목



17일 부산경남경마공원 제5경주로 '제18회 KRA컵 마일' 대상경주가 열린다. 컴플리트밸류(왼쪽)와 승부사의 라이벌 맞대결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17일 '트리플 크라운'의 첫 무대인 '제18회 KRA컵 마일' 대상경주가 부산경남경마공원 제5경주로 열린다. 경주거리는 KRA컵 마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1600m(약 1마일)이며 총 상금은 6억 원이다.

'트리플 크라운'은 한 해의 국산 최우수 3세마를 선발하는 시리즈 경주다. 지난주 열린 '루나 Stakes'가 국산 최우수 3세 암말을 선발하는 경주인 것과 달리 '트리플 크라운'은 국산 3세마이면 성별 제한이 없다. '트리플 크라운'은 'KRA컵 마일' 외에 '코리안더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등 3개 경주로 이루어졌다. 각 경주 승점을 합해 가장 많은 경주마가 '국산 3세 최우수마'가 된다.

경주 상금과 별도로 최우수마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3개의 경주를 모두 우승하면 '삼관마'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이번 'KRA컵 마일'에는 서울 6두, 부경 7두 등 13두가 출전할 예정이다.

●컴플리트밸류 (서울, 3세, 수, R67, 승률 83.3%, 복승률 100%)

작년 2세마 최강자다. 데뷔 이후 지난해 '브리더스컵'까지 5연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3개월 만에 출전한 '스포츠서울배' 대상경주에서 승부사에게 1위를 내주며 6연승이 좌절됐다. 그래도 대상경주 2회 우승을 기록한 강력한 우승 후보다. 대표 씨수말인 A.P.인디의 손자마라는 혈통과 체구, 근성, 큰 주폭, 스피드까지 고루 갖추었다. 후반 직선주로에서의 폭발적인 추입이 특징이다.

●승부사(서울, 3세, 수, R71, 승률 71.4%, 복승률 71.4%)

출전마 중 레이팅이 가장 높다. 지난해 '쥬버나일' 시리즈에서는 '농협중앙회장배'만 출전해 3위를 기록했다. 데뷔 후 지금까지 7회 출전해 두 번의 3위 외에는 전부 우승했다. 특히 3월 '스포츠서울배'에서는 초반 준수한 스타트와 스피드를 활용해 선행으로 경주를 전개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KRA컵 마일 역시 컴플리트밸류와의 라이벌 맞대결이 기대된다.

●아스펜태양(서울, 3세, 수, R53, 승률 50.0% 복승률 50.%)

대표 씨수말인 스톰캣과 A.P.인디의 좋은 혈통을 지녔다. 서울의 박대흥 조교사와 명기수 문세영이 함께 해 꾸준한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장배'를 우승했으며 올해 3월 '스포츠서울배'에서 승부사와 컴플리트밸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KRA컵 마일'은 컴플리트밸류, 승부사, 아스펜태양 모두 처음 출전하는 1600m 경주여서 관심이 쏠린다.

●맨오브더이어(부산, 3세, 수, R50, 승률 28.6% 복승률 42.9%)

3월 부경 '경남신문배' 우승마다. 이 우승으로 김병학 조교사는 데뷔 이후 18년 만에 첫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했다. 1월에는 1800m 경주에서 3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해 '브리더스컵'에서는 막판 뒷심 부족으로 5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체력을 잘 안배해 그때의 실수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신문배' 직전부터 양전구절염(양 앞다리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 우려할 부분이다.

●위너스타(부산, 3세, 수, R58, 승률 22.2.% 복승률 55.6%)

출전마 중 1600m와 1800m 중장거리 경험이 가장 많다. 최근 출전한 1800m 경주에서는 5마신 차의 여유로운 우승을 거뒀다. 지난해 'Rookie Stakes@부산'에서 막판 추입으로 우승했고, '브리더스컵'도 중위권을 달리다가 마지막 추입으로 따라붙어 3위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추입으로 경주를 전개할 확률이 높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경주마 재활' 팔 걷는다

수술·진단비 면제…재활 비용 지원
복귀 후엔 주기적이 건강 모니터링

부상으로 위기를 맞은 경주마의 회복과 복귀를 위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주마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주마 부상지원 프로그램은 무료로 수술비용을 지원하지만 휴양이나 재활까지의 회복 과정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경주마 재활 지원 프로그램은 경주마의 재활·휴양비 일부를 '더러브렛 복지기금'(구 경주퇴역마 복지기금)에서 지원한다. 또한 수혜 대상인 경주마가 퇴역하면 승용마로 활용 영역을 확장하는 등 경주마 생애주기 기반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경주 출전 경험이 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휴양이나 재활이 필요한 질환을 가진 부상마다. 한국마사회는 수술·진단비 면제와 재활·휴양을 위한 위탁 관리비를 지원한다. 휴양 및 재활 비용은 경주마 한 두 당 최대 600만 원(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정 대상은 서울 10두, 부산경남 10두다.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말들은 수술 이후 5~6개월 차에 장수, 제주목장에 입사해 훈련주로나 언덕주로를 활용한 기승 재활 치료를 받는다. 경주마 복귀 후에는 마사회 동물병원의 정기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은퇴가 결정되면 경주퇴역마 관리 프로그램에 자동 편입되어 경주퇴역마 전환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승용 전환 과정을 거친 후 승용마로 활동한다.

선정 절차는 경주마에게 부상이 발생하면 한국마사회 서울 혹은 부산경남 동물병원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서 및 퇴역시 수혜마 기증 서약서 등을 말보건원(보건총괄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경주마 재활지원 실무심의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을 늘리고 수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재활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주마의 은퇴 이후 안정적으로 용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설계도"라며 "앞으로도 말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코로나 휴장 기간 시효 지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장 및 입장제한이 실시되는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원래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한국마사회는 환급시효가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이었던 2020년 2월23일부터 2022년 4월7일까지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기간을 6월30일 오후 3시까지 연장한다. 마권 및 구매권 환급은 경마일(금~일) 한국마사회 전 사업장 발매창구에서 가능하다.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정된 평일 환급창구에서 실시한다.

서울경마공원 벚꽃길서 사랑의 단체헌혈

한국마사회는 14일 서울경마공원 벚꽃길에서 헌혈절대부족 위기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연간 네 차례의 단체헌혈행사를 추진해 278명의 임직원 및 경주마 관계자의 혈액을 모아 전달해왔다. 14일 '사랑의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 지원을 통해 서울경마공원 벚꽃길에서 진행했다. 한국마사회는 3년 만에 개방한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알리고 헌혈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



하진경 작가의 '말마'.

말박물관, 하진경 작가 '달리는 말마' 초대전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하진경 작가의 '달리는 말마' 초대전을 15일부터 진행한다. 원래 2020년 개최할 전시회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면서 2년 만에 열리게 됐다. 전시회는 5월15일까지 목~일요일에 열리며 이번 주부터는 어린이도 입장 가능하다. 말박물관 어린이 입장이 재개된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어린이를 위한 종이말 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